

## ◎ 2004년 워크샵 개최

2004년 2월 6일(금)~7일(토) 회원기관간의 정보교류 및 소속 회원간의 화목의 장을 마련하고자 STIMA 워크샵을 부산 해운대 글로리 콘도에서 개최하였으며, 아울러 올해부터는 매년 7월에 개최하였던 정기총회를 정관에 따라 워크샵과 더불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문헌정보학회 회장인 한복희(충남대학교)교수님의 초청강연이 있었고, 2003년도 STIMA가 선출한 해외 교육훈련 파견자인 한국과학기술원 노시경 선생님과 한국수자원공사 장영숙 선생님은 해외탐방 정보관리 기관에 대한 사례발표를 하였습니다.

워크샵과 더불어 개최한 정기총회는 총 40개 정회원기관중 19개 기관이 참석하고 위임장 제출기관이 4개 기관으로 과반수가 넘는 회원기관의 참여로 성원이 되었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03년도의 예산 및 활동에 대한 보고를 참석한 정회원에게 하였습니다.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회원들이 이날 만나 그 동안의 밀린 이야기와 많은 정보교환을 나눈 뜻 깊은 하루가 되었습니다.

## ◎ 제3회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장상

적극적인 STIMA활동을 유도하며, 수상자의 소속기관의 기술정보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만든 상으로서 올해는 1월 30일에 이사회에서 추천 받은 다음의 두 분이 영광을 차지하였습니다. 이 분들에게는 2004년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 워크샵 때 시상식을 통하여 상장 및 상패를 전달하였습니다.

→ 김상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김미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 기술위원회 신설

STIMA 홈페이지 운영에 따른 업무가 확장됨에 따라 홈페이지 개선, 회원기관 소장DB 공동활용 및 신 지식정보기술 도입 등에 대한 기술정보 전문가들의 자문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술위원회를 2003년 11월에 개최된 이사회 심의를 거쳐 신설하였으며, 아래 분들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 손청기 위원장 (한국과학기술원)

→ 구중억 위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신용주 위원 (한국과학기술원)

## ○ 지구협의회 및 관종별 협의회와의 간담회 개최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우리 나라 도서관계의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상기 협의회 실무책임자 (사무국장, 총무)와 한국도서관협회 임원들간의 간담회를 2004년 2월 13일(금) 한국도서관협회 IFLA회의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이지호 사무국장이 참가하여 각 협회 행사 관련 협조, 전국도서관대회 역할 분담, IFLA 2006 서울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상호협력 및 기타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 ○ Union DB 데이터 입력요청

협의회 홈페이지(www.stima.or.kr)에서는 각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상호대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는 각 기관들이 솔선 수범하여 회원기관의 단행본 서지 정보를 사무국에 정기적으로 보내주셔야 빠르게 갱신되어 최신자료의 상호대차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STIMA의 활성화 및 서로가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각 회원기관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회원기관의 자료를 신속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 2005 해외파견후보자 확정

회원기관 정보관리분야 담당직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견문을 넓힐 수 있는 해외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고자, 해외파견후보자를 추천 받아 이사회의 의결로 다음의 2분이 선정되었습니다.

대상자 기관의 해외출장비 예산을 반영하기가 수월하도록 2005년도 후보자를 올해 상반기에 선정하였으니, 대상자들은 각 기관에서 내년도까지 원하시는 장소를 선정하시어 출장을 다녀오신 후 STIMA 워크샵 때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최선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김미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 도서관문화 6월호에 소개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출판하고 있는 '도서관문화' 6월호에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에 대하여 소개를 하였습니다. 저희 협의회에 대한 내용을 '도서관 분야 NGO를 찾아서' 라는 코너에 실었는데 1972년에 '서울연구개발단지 도서관실무자협의회'를 만든 것을 시작으로 이후 사단법인이 되어 협의회는 정통성을 확보한 현재까지 55개 전체 회원기관의 활동 및 목적 등을 나열하였으며, STIMA의 역할 및 미래에 나아가야 할 바램 등을 간략하게 소개하였습니다.